



한·멕시코 공동 ESCO사업 추진

- 연내 참여 사업체 선정... 민간차원 협력도 확대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공동으로 ESCO(에너지절약 기업)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중 개최된 한-멕시코 그린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마르띠네스 멕시코 에너지부장관과 회담을 통해 ESCO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지경부는 멕시코 최대 에너지소비 사업장인 페멕스(PEMEX)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를 절약하는 ESC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은 연내 실무위원회를 열어 공동사업에 참여할 ESCO기업과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내년부터 ESCO 사업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멕시코 옵티마 에너지사와 공동 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국은 에너지절약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정보를 교류하는 등 민간차원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韓·美 클린에너지 공동연구센터 만든다



한국과 미국이 클린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연구지원센터도 함께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1월에 클린에너지 기술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정부 간 기술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클린에너지장관회의 참석 후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바이오, 태양광, 탄소포집, 가스하이드레이트,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등 클린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하는 한·미 클린에너지 기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지경부, 197개 R&D 과제에 1110억 지원

〈2010년도 상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내역〉

기술부문	기술개발 사업	선정내역	지원금액 (백만원)
에너지자원 기술	에너지자원 기술	「10kWh급 가정용 리튬이온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등 49개 과제	41,655
	자원순환기술	「산업 공정용 온실가스(불활성 가스) 대체기술개발」등 9개 과제	3,822
신재생 에너지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아자유 부산물 활용 에너지 생산」 등 72개 과제	42,307
전력기술	전력산업원천 기술	「송변전용 친환경 기반 디바이스 상용화 기술 개발」등 54개 과제	16,924
	원자력발전 기술	「원자력 발전설비용 비파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등 과제	2,23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사용후 핵연료기술	「한반도 지질환경 평가기술 개발」등 3개 과제	4,070
합계		197개 과제	111,014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5일 ‘10kWh급 가정용 리튬이온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등 197개 연구·개발 과제에 총 1,1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에너지기술 분야에선 낮 동안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삼성 SDI의 ‘가정용 리튬이온전지 에너지저장시스템 상용기술 확보’ 사업, 귀뚜라미의 ‘초고효율 콘덴싱 가스보일러 개발’ 등 49개 과제가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MW급 단지용 조류발전시스템 개발’과 젠닥스의 ‘아자유 부산물 활용 에너지 생산’ 등 72개 과제가, 자원순환기술 분야에선 ‘산업 공정용 온실가스 대체기술 개발’ (아이피에스) 등 9개 과제가 뽑혔다.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친환경 기반 송변전용 디바이스 상용화 기술개발’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 등 10개 과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에선 ‘한반도 지질환경 평가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3개 과제가 지원된다.

필리핀에도 한국형 원전 수출길 열리나

- 아키노 대통령 관심... 재정문제 등 해결해야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신임 대통령이 자국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형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한국형 원전을 원하는 어느 나라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키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채널을 통해 알아보았다.

아키노 대통령의 발언이 필리핀에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전력이 국제공개매각 중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기자재를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다.

앞서 아키노 대통령의 사촌인 마크 코주앙코 전 하원의원은 지난 3월초 당시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친서에는 KEDO가 공개 매각하려는 기자재를 매입, 필리핀에 1천MW급 한국형 원전(OPR-1000) 2

기를 건설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4개월여 만에 아키노 대통령이 한국형 원전 건설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올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필리핀에도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지경부는 필리핀이 원전을 건설하려면 국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것 인지부터 재정문제에 이르기까지 내부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전건설계획을 어떻게 세워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제1호 탄소펀드 中國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400억 규모 투자하기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영하는 국내 제1호 탄소펀드가 최초로 한국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사업에 투자한다.

지식경제부와 참여기관들은 지난달 20일 중국 섬서성에서 사과농장의 폐목재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00km²용지에 5,000만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 사과농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활용한 발전수익 및 탄소저감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 수익을 추구한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총 700억원으로 LG상사, 하나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

며, 이 중 탄소펀드는 400억원을 투자한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컨소시엄은 2012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계획으로 연간 3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평균 3% 오른다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대로 올랐다. 9~10월 중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을 평균 3%대로 올리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끝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중심으로 올리고,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맞춰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작년 6월 전기요금을 평균 3.9% 올렸으나, 여전히 전력 생산 원가에 못 미친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 놓는 바람에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가 회복되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 13종, 연간 전기료 표시 의무화



앞으로 가전제품을 살 때,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미리 알 수 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연간 예상되는 전기 요금을 부착하는 '연간 에너지 비용표시' 제도를 지난 달부터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대상 가전제품은 전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13종이다. 예를 들어 냉장고(700L급)의 경우, 1등급의 연간 예상 전기요금은 7만5936원으로 3등급(9만 8400원)과 비교해 2만2464원을 아낄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전매장 내 해당 제품에 연간에 에너지비용표시를 알리는 피켓을 부착하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특별기획전 등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만 보면 소비자가 얼마나 전기를 아낄 수 있는지 잘 몰랐으며, 이번에 전기 요금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훨씬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에너지 소비, 美 제치고 '세계 1위'

- 작년 석유 22억t 분량 소비 10년전엔 美의 절반 수준
- "중국 위상 더 강력해질 것"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세에 '에너지 대국' 미국의 100년 아성이 무너졌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미국 소비량을 추월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달 19일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에너지 소비 1위 국가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900년대 초부터 한 세기 이상 에너지 최대 소비국 자리를 유지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매년 원유뿐 아니라 원자력·석탄·천연가스·재생에너지 등 각국이 사용한 에너지의 총량을 석유 기준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지난해 중국은 석유 22억52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해 21억7000만t을 소비한 미국을 4% 가량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며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추구한 미국의 소비량이 차츰 줄어든 반면 10년 동안 중공업과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10% 가까이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구하면서 지난해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좌절시킨 바 있다. 중국의 협조나 참여 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국제 전략을 펼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